



2018-06 Vol. 1

# NEW (160550)



**SEJONG DATA**

Web : <http://www.sejongdata.co.kr>

E-mail : [info@sejongdata.com](mailto:info@sejongdata.com)

TEL : 070)8614-6646

FAX : 070)4063-6646

## Contents

---

- ▶ Product Portfolio # 회사의 개요
- ▶ 임원현황 # 주요 사업의 내용
- ▶ 2017년 Overview # 1Q18 Review
- ▶ 2018년 Overview # 2018 Preview
- ▶ 스튜디오앤뉴 중장기 성장 계획
- ▶ 브라보앤뉴 중장기 성장 계획
- ▶ 뮤직앤뉴 중장기 성장 계획
- ▶ Finance Summary(분기별)
- ▶ 사업부문별 손익(연결)
- ▶ Finance Summary(년도별)
  
- ▶ 대차대조표
- ▶ 재무비율
- ▶ 손익계산서
- ▶ 손익계산서(별도)
- ▶ 현금흐름표
  
- ▶ S-Guidance
- ▶ Valuation
  - RIM
  - DCF
- ▶ Q&A
  
- ▶ 재무분석
  - ① Summary
  - ② 성장성 분석
  - ③ 수익성 분석
  - ④ 안전성 분석
  - ⑤ 활동성 분석
  - ⑥ 생산성 분석



# NEW (160550)

1Q18 Review: 매출액 245억원, 영업이익 -46억원 달성

T: 070-8614-6646

E-mail: info@sejongdat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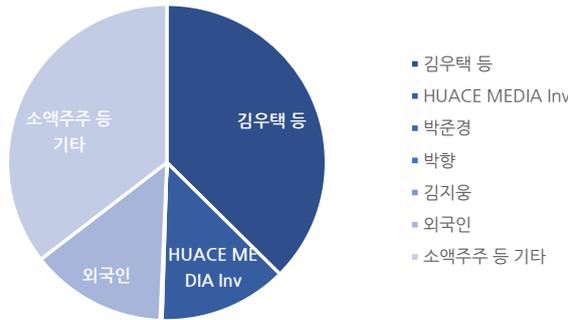
▶ **Product Portfolio**

기준: 18.1Q / 단위: 억원

사업 부문	원재료	매출액	매출비중	구체적 용도 및 상표
영화	영화관 상영 배급	37.1	38.6%	제작/수입, 시사회, 영화관 사업자별 배급 계약 등
	공중파 등 판권계약	42.7	44.4%	방송사별 판권 제시, 방송사 선정 및 계약, 방영 등
극장매출	영화상영	13.2	13.7%	영화관 사업자별 수급계약, 영화관 상영, 관객수 정산 등
드라마	국내/수출 등	1.03	1.1%	드라마 부가판권의 국가별 판권계약 및 수익정산
기타	기타	2.1	2.2%	-

자료: NEW / 세종기업데이터

# **주주현황**



주주명	지분율
김우택 등	37.46
HUACE MEDIA Inv	13.03
박준경	0.15
박향	0.03
김지웅	0.02
외국인	13.83
소액주주 등 기타	35.48

자료: NEW / 세종기업데이터 / 최근 분기말 기준

▶ **임원현황**

성명	직위	담당업무	재직기간	주요 경력
김우택	대표이사	총괄	2012.01	메가박스 대표이사
유제천	부사장	경영지원 부문장	2013.1	메가박스 경영지원 상무
서동욱	부사장	전략기획 부문장	2010.03	미디어플렉스/메가박스 본부장
임재환	사내이사	재경부문 임원	2014.03	메가박스 관리팀 부장
김지웅	사내이사	전산팀 이사	2018.03	현재 NEW 전산팀장
안병걸	기타	감사위원	2014.03	현재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김정기	사외이사	감사위원	2016.1	현재 저스틴인베스트먼트(주) 대표이사
문유식	사외이사	감사위원	2016.1	현재 화성 SNC(주) 대표이사

자료: NEW / 세종기업데이터 / 최근 분기말 기준

# 회사의 개요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이하 NEW)는 영화투자 및 배급 등을 주요 목적 사업으로 2008년 6월 25일에 주식회사 도메오홀딩스로 설립되었다. 2012년 1월 25일 100%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를 흡수합병 하였으며, 합병 후 주식회사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피합병회사의 상호)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2014년 12월 코스닥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으며, 회사의 보통주 납입자본금은 설립 후 수차의 유·무상증자를 거쳐 2018년 3월 31일 기준 137억원이다. 주요 주주로는 대표이사 김우택(37.17%), HAUCE Media(HongKong) Investment Limited(13.03%) 등이 있다.

# 주요 사업의 내용

① 영화배급 사업

영화산업은 투자 및 제작의 생산 단계를 거쳐, 배급 및 상영(영화관, 비디오, DVD, 공중파, Cable TV, 위성방송, IPTV, 인터넷 VOD 등)의 유통단계(소비매체)를 통한 영화 콘텐츠의 반복 판매 및 소비라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일반 산업과 달리 초기 제작/투자비 비중이 크지만, 유통단계를 거치는 동안 추가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1차 유통단계에서 일정 이상 흥행하면, 그 다음 유통단계(소비매체)에서는 소비 과정을 통해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다. 영화는 경험을 통해 소비가 이뤄지는 경험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소비자가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 반영구적인 반복 판매 및 소비가 일어나며, 이를 통해 각종 부가상품을 개발하여 그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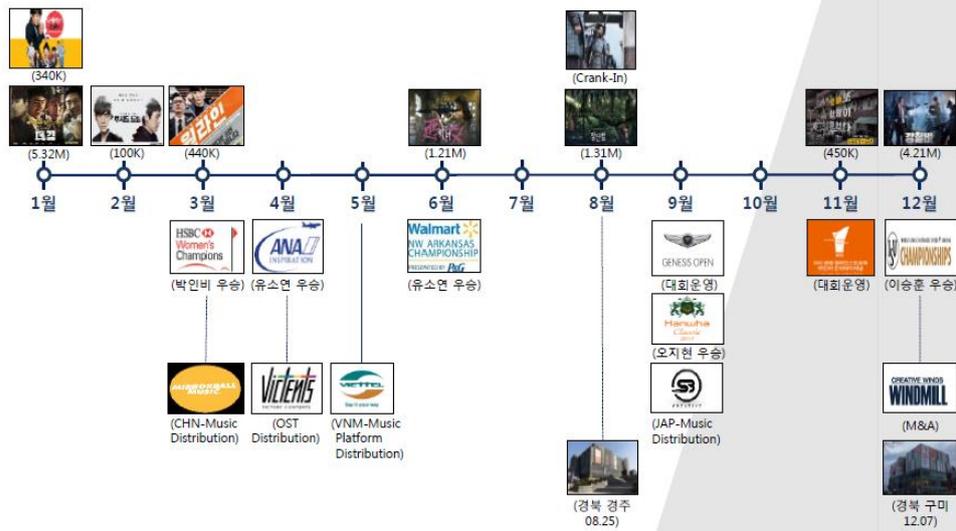
영화 배급은 영화를 관객 및 시청자에게 도달시키는 일로,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영화를 극장에서 상영시키는 것이다. 배급사는 적절한 극장과 특정 영화를 개봉하기로 약정을 맺어 영화를 관객에게 선보이게 된다. 극장 배급 이외에도 비디오 배급, DVD 배급, 인터넷 배급, 공중파 및 케이블 방송사 배급, 해외 배급 등도 있다.

투자배급사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외부 투자자로부터 프로젝트 투자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어야 하며, 흥행에 성공할 수 있는 영화를 선별해 낼 수 있어야 하고, 영화제작사가 제작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영화제작사로부터 완성된 영화의 판권을 인수한 다음에는 대중의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마케팅 능력을 발휘해야 하며, 가능한 많은 극장에 배급할 수 있는 배급 능력과 부가판권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협상력까지 갖추어야 한다.

NEW는 대기업 계열사에 비해 인원과 자원이 한정적임에 따라 매년 투자 영화 편수를 증가시켜 라인업을 구축하기보다는 각 작품마다의 수익성에 집중에서 인력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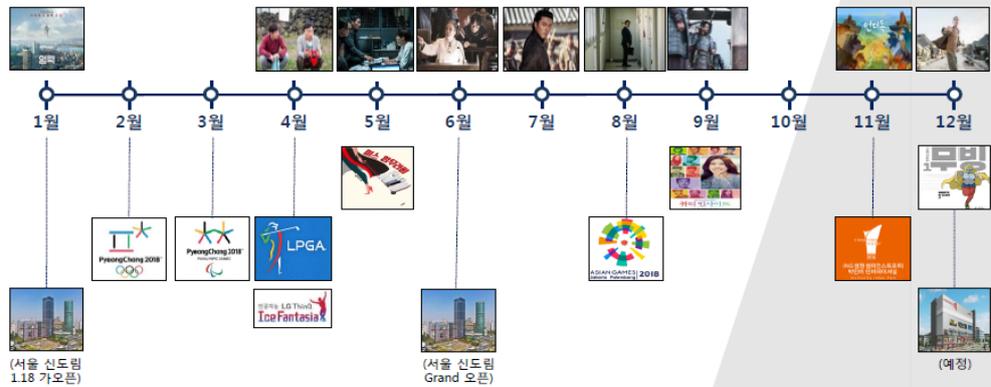
2017년 NEW가 배급한 영화 콘텐츠로는 <더킹>, <루시드드림>, <원라인>, <악녀>, <장산범>, <반드시 잡는다>, <강철비> 등이 있다. <더킹>과 <강철비>가 각각 532만명, 421만명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하였고 나머지 콘텐츠들은 130만명 이하의 관객 수를 동원하였다.

▶ 2017년 Overview



자료: NEW / 세종기업데이터

▶ 2018년 Overview



≡ 상기 시기는 향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료: NEW / 세종기업데이터

② 영화관 사업

2016년 6월 자체 영화관 브랜드인 ‘씨네스테이션 Q’를 론칭하였다. 2017년 8월 ‘경주 보문점’, 12월 ‘경북 구미점’ 총 2개 사이트를 오픈하였으며, 2018년 상반기에는 신도림 테크노마트 사이트를 신규로 오픈하였다. 2018년 연말까지 1~2개 사이트를 추가로 오픈할 계획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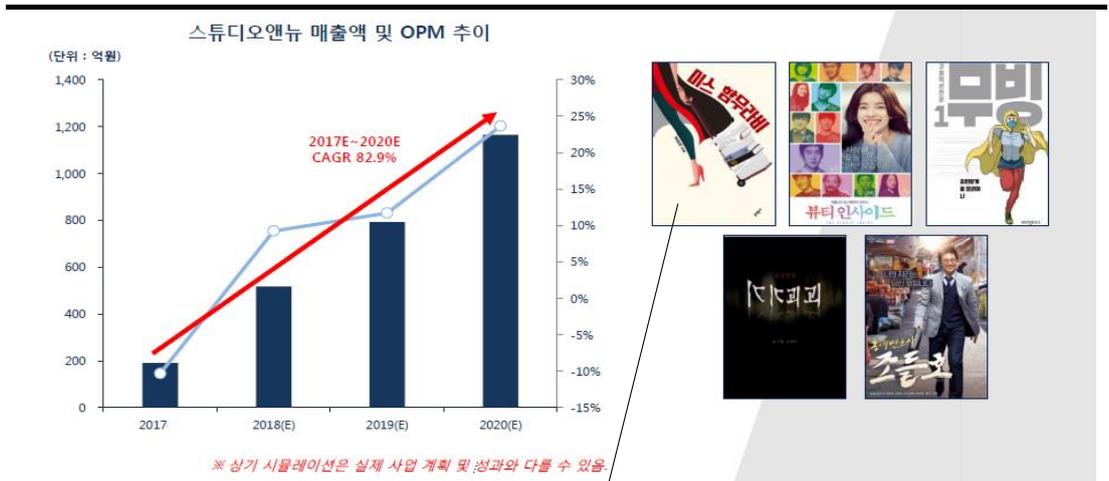
③ 스튜디오앤뉴

2016년 8월 말에 방송 투자·제작 법인인 (주)스튜디오앤뉴를 신설하였다. (주)스튜디오앤뉴를 통해 방송프로그램 기획, 투자, 제작은 물론 원천 IP를 이용하여 드라마, 영화, MD 등 다양한 사업을 만드는 OSMU를 진행할 예정이다.

NEW는 2016년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제작하여 국내외적으로 큰 흥행에 성공시켰으며, <태양의 후예> 판권은 중국에 역대 최고가인 회당 25만달러에 선판매 되었고, 일본에서는 약 20억원에 수출되었으며, 이 외에도 30여개의 나라에 판매하였다. 또한 국내외 흥행을 바탕으로 태후 콘서트, MD 사업 등 부가 사업들이 개발되면서 지속적으로 추가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태양의 후예> 제작 성공을 기반으로 ‘스튜디오앤뉴’를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제작 사업에 뛰어 들었다.

2018년 상반기 JTBC에서 <미스 함무라비> 방영을 시작으로 꾸준히 제작/방영 편수를 늘려 방송투자제작 사업을 향후 주요 성장 동력 사업 중 하나로 자리매김시킬 계획이다.

▶ 스튜디오앤뉴 중장기 성장 계획



자료: NEW / 세종기업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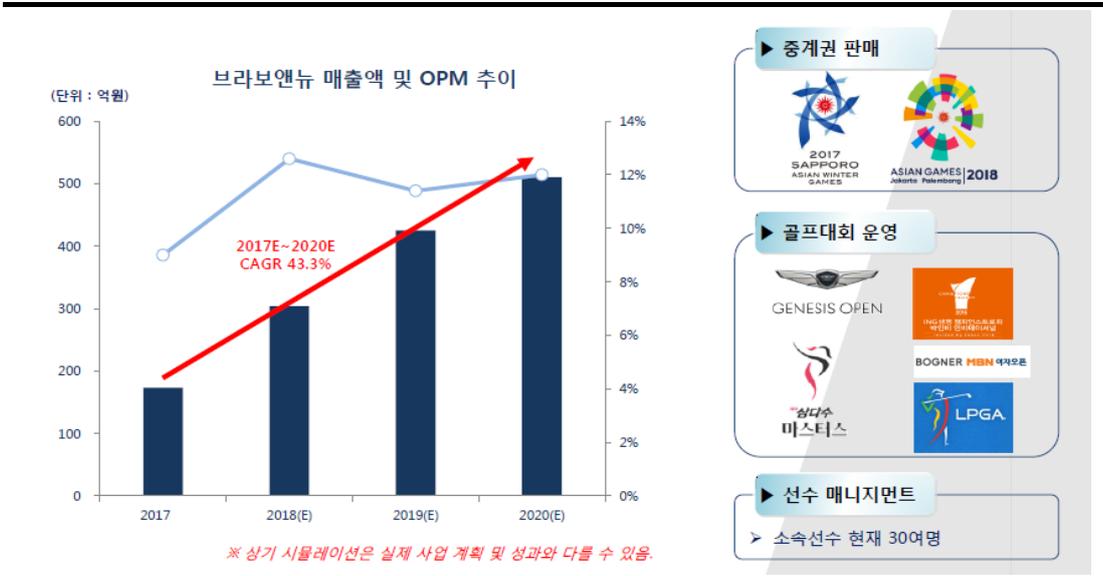
**감독:**곽정환 PD  
**제작:** 스튜디오앤뉴  
**주연:** 고아라, 엘, 성동일  
**장르:** 법정로맨스  
**방영일:** 2018년 5월  
**로그라인:** 초미니를 입고 킬힐을 신은 의욕 과다 열혈 신입 판사 박차오름이 부장판사 한세상, 배석판사 임바른과 함께 이웃들이 실제로 겪을 법한 현실적인 사건을 다룬다. 강한 자에게 강한, 약한 자에게 약한 법원을 외치는 '미스 함무라비' 라는 별명을 달고 벌이는 유쾌 발랄 법정 활극.

④ 브라보앤뉴

(주)브라보앤뉴는 2015년 2월에 설립된 법인으로 현재 스포츠 대회 중계권 유통업과 스포츠 선수 매니지먼트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현재 주요한 국제 스포츠 대회인 아시안게임을 유통한 바 있으며, 이 외에도 주요 국제 스포츠 대회 중계권을 확보하여 유통하려는 계획이 있다. 스포츠 대회 중계권 유통업은 주로 다년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짐은 물론, 선비용이 나가지 않는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고 있다. 중계권을 보유한 협회 및 기업과 플랫폼을 연결하여 최대한 높은 수익에 판매한 후, 중계권을 보유한 협회 및 기업에 약속한 일정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유통 수수료로 수취하게 된다.

또한 '골프여제' 박인비 포함 유소연, 허미정, 이승현, 백규정, 오지현, 김태우 등 골프선수들과 스피드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 이승훈 선수, 탁구신동 신예빈 등 20여명의 스포츠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스포츠 스타들과 유망주를 보유함으로써 그들의 마케팅 권리를 활용, 각종 스폰서십과 MD 그리고 이벤트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선수 매니지먼트사업은 단순한 스폰서십을 넘어서 다양한 경기 및 대회 개발을 포함하여 방송 및 스폰서십을 연계하는 토탈 매니지먼트를 추구하고 있다.

▶ 브라보앤뉴 중장기 성장 계획



자료: NEW / 세종기업데이터

- 신규 스포츠 이벤트 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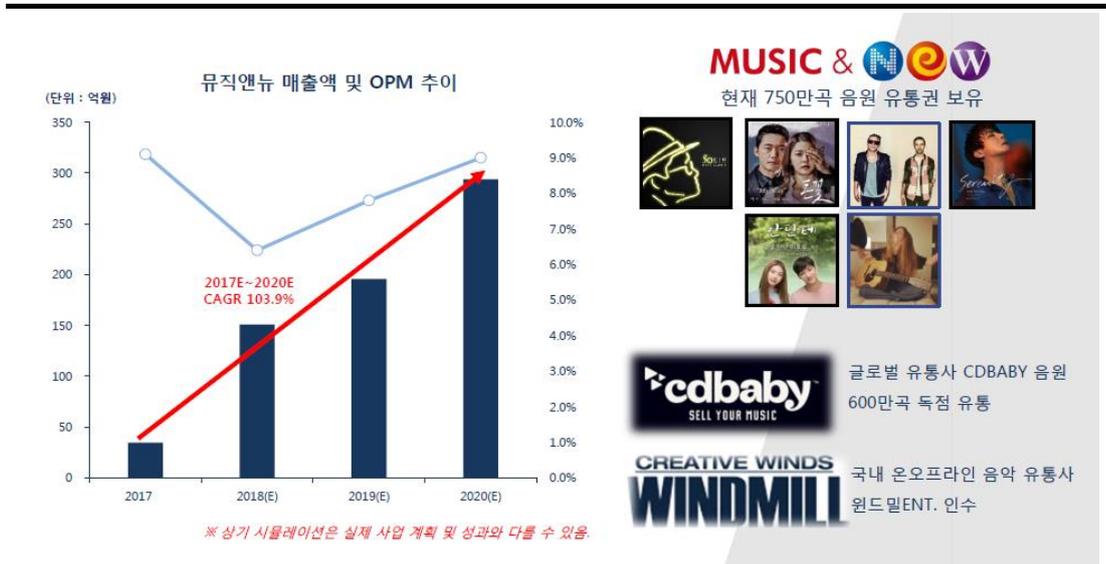
구분	기간	지역	상세 내역
스포츠 프리젠테이션 (SPP) 운영 사업	2018.02.09 ~ 2018.03.18	평창 등 강원도 일대	대회 전광판 운영, 전광판용 제작물 사전 제작 등
2018 LPGA 메디힐 챔피언십	2018.04.26 ~ 2018.04.29 (현지 기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레이크머세드	박인비, 유소연, 허미정 등 출전 (약 144명 규모)
인공지능 LG ThinQ 2018 아이스 판타지아	2018.04.20 ~ 2018.04.22	목동 아이스링크	피겨스타 및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국가대표 컬링팀 등 참가

자료: NEW / 세종기업데이터

⑤ 뮤직앤뉴

뮤직앤뉴는 2016년 가수 매니지먼트 사업을 정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이 예상되는 양질의 음원 및 음반에 투자하고 유통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김건모, LYn, M.C THE MAX, Vibe 등 국내 대표 가수들의 음원들을 포함해 약 600여곡의 음원을 국내에 독점적으로 유통하고 있는 것은 물론, 최근 음원 차트 상위권에 랭크되며 부각되고 있는 인디 음원과 NEW가 진행하는 영화 및 드라마 등의 OST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양질의 음악 콘텐츠에도 지속적으로 투자 및 유통을 계획하고 있다.

▶ 뮤직앤뉴 중장기 성장 계획



자료: NEW / 세종기업데이터

▶ Finance Summary(분기별)

단위: 억원, % ▶ 지역별 매출액

구분	16.4Q	17.1Q	17.2Q	17.3Q	17.4Q	18.1Q	18.2QF		
매출액	329	378	189	195	184	245	498		
QoQ	-38.67	14.79	-50.01	3.32	-5.67	32.92	103.26		
YoY	45.69	57.45	24.16	-63.64	-44.08	-35.24	163.49		
영업이익	-15	37	-24	-10	-54	-46	-9		
OPM	-4.48	9.85	-12.89	-5.12	-29.60	-19.01	-1.80		
YoY	적전	흑전	적전	적지	적지	적지	적지		
YoY	적지	흑전	적지	적전	적지	적전	적지		

자료: 세종기업데이터, 참고: 시장컨센서스

# 1Q18 Review

2018년 1분기 매출 245억원(QoQ: +32.92%, YoY: -35.24%), 영업이익 -46억원(QoQ: 적지, YoY: 적전), 순이익 -48억원(QoQ: 적지, YoY: 적전)을 기록하였다. 별도 기준 사업부문별로는 영화 80억원, 영화관 13억원, 드라마 1억원, 기타 96억원으로 구성된다. 자회사들의 경우 뮤직앤뉴 매출 11억원, 순이익 0.5억원 / 콘텐츠판다 139억원, 순이익 6억원 / 브라보앤뉴 매출 55억원, 순이익 -3억원 / 스튜디오앤뉴 매출 63억원, 순이익 -3.8억원, / 윈드밀이엔트 매출 13억원, 순이익 2.5억원을 기록하였다.

본업의 경우 1분기 기대작이었던 <염력>의 흥행 실패가 주요 실적 부진의 원인이었다. 관람객 수가 100만을 넘지 못하면서 BEP에 도달하지 못했고, 미국으로의 넷플릭스 판권 매출은 2분기에 반영되면서 적자폭을 줄여주지 못하였다. 영화관 사업의 경우 경주점은 흑자전환에 성공하였으며 구미점은 아직 BEP에 도달하지 못했다.

▶ 사업부문별 손익(연결)

단위: 억원, %

매출액	1Q16	2Q16	3Q16	4Q16	1Q17	2Q17	3Q17	4Q17	1Q18	YoY
영화	223	95	505	312	349	117	120	94	130	-62.7
콘텐츠제작									31	
기타	17	57	31	17	29	72	75	83	83	189.5
합계	240	152	536	329	378	189	195	184	245	-35.2

영업이익	1Q16	2Q16	3Q16	4Q16	1Q17	2Q17	3Q17	4Q17	1Q18	YoY
영화	-22	-29	121	16	43	-48	-5	-33	-70	적전
콘텐츠제작									-4	
기타	0	14	-3	-30	-6	24	-5	1	28	흑전
합계	-22	-15	118	-15	37	-24	-10	-54	-46	적전

자료: NEW / 세종기업데이터

▶ Finance Summary(년도별)

단위: 억원,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F
매출액					432	1,264	620	826	1,257	945	2,134
성장률						192.73	-50.98	33.24	52.23	-24.80	125.82
영업이익					52	191	61	-25	66	-52	64
성장률						264.01	-68.27	적전	흑전	적전	-223.12
OPM					12.15	15.11	9.78	-3.06	5.28	-5.45	3.00

자료: 세종기업데이터, 참고: 시장컨센서스

# 2018 Preview

2018년 2분기 이후 영화 라인업은 다음과 같다.

① 영화

- 바람바람바람: 2018년 4월 개봉하였으며 영화 <스물>의 이병헌 감독 작품이다. 로맨틱코미디 장르이며 관람객수 119만을 동원하여 BEP 이상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 독전: 총 제작비 100억원 이상 투입된 대작으로 2018년 5월 22일 개봉하였다. 2018년 6월 말 현재 관람객 수 500만을 돌파하며 흥행에 성공하였다. <천하장사 마돈나>, <경성학교: 사라진 소녀들>의 이해영 감독 작품이며 故김주혁 배우의 유작이기도 하다. 흥행 성공으로 BEP 이상의 수익을 달성하였으며 미국에 판권이 판매되면서 3분기 실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허스토리: 2018년 6월 27일 개봉한 위안부 소재의 영화다. <내 아내의 모든 것>, <간신>의 민규동 감독의 작품이며 대만, 호주 등 총 4개국에 판매되었다. 제작비는 2018년 라인업 중 가장 적게 집행된 반면, 해외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BEP는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작품이다.

- 창궐: 2018년 개봉 예정작으로 <공조>의 김성훈 감독의 작품이다. 조선판 좀비물로 현빈과 장동건이 주연을 맡았다. 총 제작비 100억원 이상의 대작으로 흥행 여부가 실적에 중요 변수이다.

- 안시성: 총 제작비 200억원 이상 투입된 대작으로 <7번방의 선물>, <변호인> 등 다수의 영화를 이끌어 낸 장경익 전 NEW 영화사업부 대표가 프로젝트를 맡았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성공을 바탕으로 스튜디오앤뉴에서 직접 제작에 들어간 작품이기 때문에 회사 내외부적으로 기대가 큰 작품이다. 조인성, 남주혁 주연으로 2018년 추석 시즌 개봉 예정이다.

- 스위키즈: <써니>, <과속스캔들>을 흥행시킨 강형철 감독의 작품으로 이 역시 총 제작비는 100억원 이상 투입되었다.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한 장르 드라마이며 아이돌 그룹 EXO의 도경수가 주연을 맡았다. 연말 개봉 예정이다.

- 목격자: <그 날의 분위기>의 조규장 감독의 작품으로 액션, 스릴러 장르이다. 2018년 8월 개봉 예정이다.

- 언더독: 한국 극장용 애니메이션 역사에서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마당을 나온 암탉>의 오성윤 감독 작품으로 유기견을 소재로 한다. 2018년 하반기 개봉 예정이다.

## ② 드라마

- 미스함무라비: 스튜디오앤뉴의 첫 번째 자체 제작 드라마로 2018년 5월 21일부터 JTBC에서 월/화 밤 11시에 방영되고 있다. 사전제작 방식으로 제작되었으며 4% 내외의 시청률을 유지하고 있다. JTBC와 2년간 4편의 드라마를 JTBC에서 방영하기로 한 MOU의 일환으로 제작, 방영 중인 드라마이며 JTBC가 제작비를 지원하고 이후 이익에 대해서는 JTBC가 메인 지분을 가져가는 형태이다. NEW에서 TF팀을 통해 진행했던 <태양의 후예>를 제외하고는 제작 레퍼런스가 없는 스튜디오앤뉴 입장에서는 안전마진을 갖고 레코드를 쌓는 측면에 의의가 있는 작품이다.

- 뷰티인사이드: 9월 예정인 드라마로 영화 <뷰티인사이드>의 드라마 버전이다. NEW의 드라마 한 편당 제작비에 수수료를 더해 100억원 내외의 매출이 인식될 것으로 보이며, 안전 마진은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튜디오앤뉴는 15~20개의 시나리오를 검토하며 꾸준히 라인업을 계획 중이며 2018년 연말에도 추가 한 편을 더 방영할 계획이다.

영화관 사업의 경우 연말까지 5호점 오픈을 계획 중이다. 신도림 사이트의 경우 동사가 직접 300억원에 부동산을 매입하여 기존 CGV가 있던 사이트를 인수하였으나, 경주와 구미를 포함하여 추가로 오픈 준비중인 사이트의 경우 임차 형식으로 운영된다. 영화관 한 사이트 당 CAPEX는 30~40억원 내외이며 보증금 10억원을 제외한 실제 비용은 20~30억원 내외로 투자된다. 지방 영화관의 경우 2년 내 BEP 달성이 타깃이며 2018년 내에는 경주와 구미 모두 BEP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스포츠 사업을 영위하는 브라보앤뉴는 2017년 기준으로 매출 224억원, 순이익 7.6억원을 기록하며 연결 실적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2018년에도 LPGA 메디힐 챔피언십, LG Think Q 2018 아이스 판타지아 등의 스포츠 이벤트 기획 및 아시안 게임 중계권 판매 등으로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당구 사업을 준비 중이다. 당구는 아직 완벽히 프로 스포츠로 인정받지 않아 국내 전체 당구 대회 규모는 약 15억원 내외에 불과하지만 니치 마켓에 진입해 의미 있는 점유율을 내는 것을 계획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후 당구 스포츠의 프로화가 진행되어 가며 좀 더 의미 있는 숫자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뮤직앤뉴의 경우 2016년 상반기 가수 매니지먼트 사업을 정리한 후 현재 드라마 OST와 인디 음악을 중심으로 음원 유통사업만 진행하고 있다. 음원 IP 확보에 집중하고 있으며 타 사업부 대비 성장률은 더디지만 한 자릿 수 중후반대의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 2017년 12월에는 음원과 음반의 오프라인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주)윈드밀이엔티를 인수하였다. 연내 합병을 완료할 예정이며 뮤직앤뉴의 외형 증가가 예상된다.

▶ 대차대조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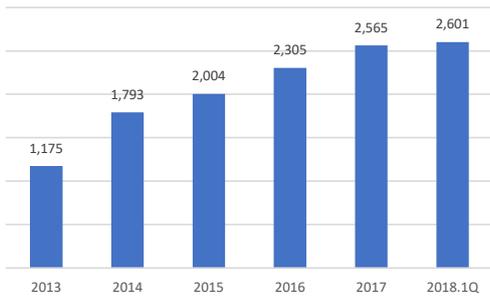
단위: 억원, %, 주재무제표 기준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1Q	CAGR(%)			
							1년	3년	5년	10년
<b>유동자산</b>	<b>957</b>	<b>1,520</b>	<b>1,678</b>	<b>1,512</b>	<b>1,524</b>	<b>1,503</b>	<b>-1.38</b>	<b>-3.60</b>	9.45	-
재고자산	0	0	0	0	1	1				
단기금융자산	5	0	145	153	2	2				
매출채권 등	295	57	122	306	318	130				
기타유동자산	296	390	640	474	819	867				
현금 및 현금성자산	361	1,072	771	581	376	495	31.56	-13.71	6.50	-
<b>비유동자산</b>	<b>218</b>	<b>273</b>	<b>326</b>	<b>793</b>	<b>1,040</b>	<b>1,098</b>	5.56	49.87	38.16	-
유형자산	5	10	8	422	536	569				
무형자산	10	14	14	16	59	58				
투자자산	199	246	303	355	377	396				
장기매출채권 등	0	0	0	0	0	0				
이연법인세자산	5	3	2	0	12	14				
기타비유동자산	0	0	0	0	57	62				
<b>자산총계</b>	<b>1,175</b>	<b>1,793</b>	<b>2,004</b>	<b>2,305</b>	<b>2,565</b>	<b>2,601</b>	1.43	9.08	17.23	-
<b>유동부채</b>	<b>719</b>	<b>494</b>	<b>579</b>	<b>552</b>	<b>921</b>	<b>1,013</b>	10.06	20.48	7.11	-
매입채무 등	564	368	433	455	612	575				
단기차입금	116	121	110	56	134	238				
<b>비유동부채</b>	<b>142</b>	<b>8</b>	<b>95</b>	<b>387</b>	<b>337</b>	<b>329</b>	<b>-2.32</b>	51.04	18.23	-
장기차입금	142	8	88	179	329	321				
<b>총차입금</b>	<b>258</b>	<b>129</b>	<b>198</b>	<b>235</b>	<b>463</b>	<b>559</b>	20.71	41.45	16.73	-
<b>부채총계</b>	<b>861</b>	<b>501</b>	<b>675</b>	<b>939</b>	<b>1,257</b>	<b>1,342</b>	6.75	25.76	9.28	-
자본금	37	69	137	137	137	137				
이익잉여금	274	298	312	356	277	229				
<b>자본총계</b>	<b>314</b>	<b>1,292</b>	<b>1,330</b>	<b>1,367</b>	<b>1,307</b>	<b>1,259</b>	<b>-3.69</b>	<b>-1.79</b>	32.03	-

자료: NEW / 세종기업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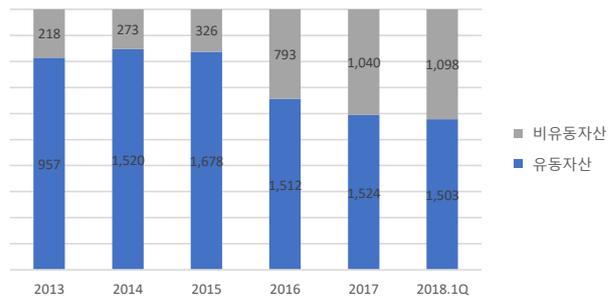
▶ 자산총계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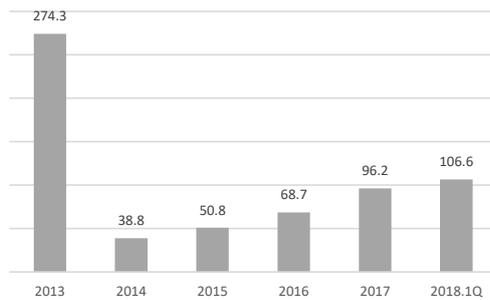
▶ 자산구성비율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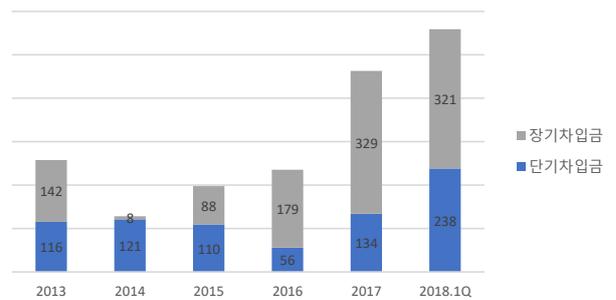
▶ 부채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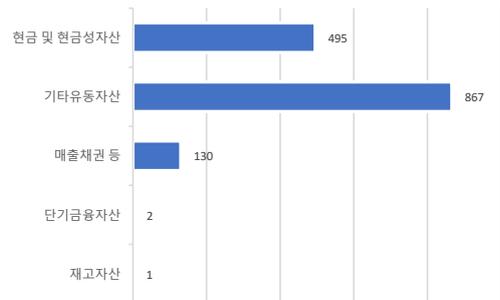
▶ 년도별 차입금 추이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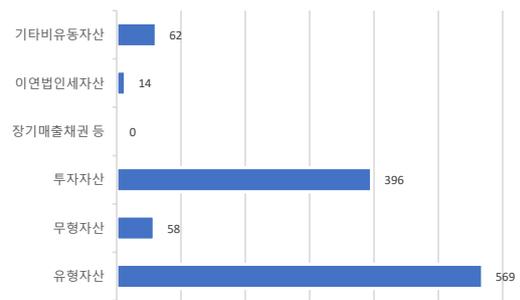
▶ 유동자산 구성비율

단위: 억원



▶ 비유동자산 구성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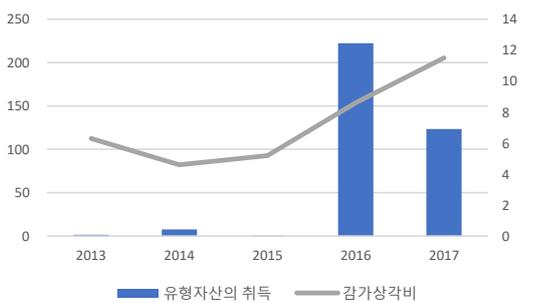
단위: 억원



투자자산 = 투자자산 + 투자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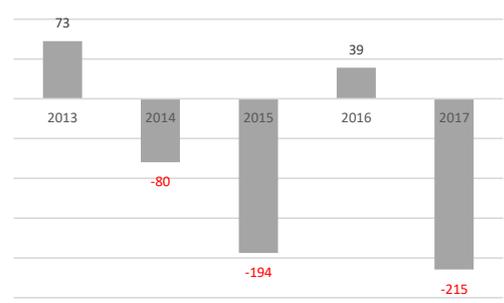
▶ 유형자산취득과 감가상각비

단위: 억원



▶ 영업활동 현금흐름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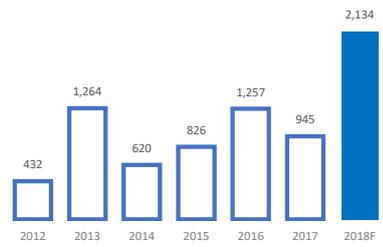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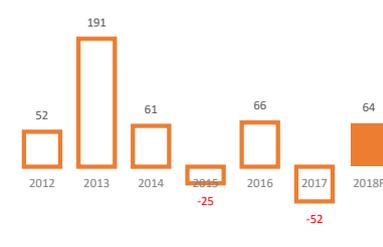
▶ 손익계산서

단위: 억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7/03	2017/06	2017/09	2017/12	2018/03
<b>매출액</b>	<b>1,264</b>	<b>620</b>	<b>826</b>	<b>1,257</b>	<b>945</b>	<b>378</b>	<b>189</b>	<b>195</b>	<b>184</b>	<b>245</b>
매출원가	953	475	738	999	736	292	154	144	147	211
<b>매출총이익</b>	<b>311</b>	<b>145</b>	<b>88</b>	<b>258</b>	<b>210</b>	<b>86</b>	<b>35</b>	<b>51</b>	<b>37</b>	<b>34</b>
판관비	120	85	113	192	261	49	60	61	92	80
<b>영업이익</b>	<b>191</b>	<b>61</b>	<b>-25</b>	<b>66</b>	<b>-52</b>	<b>37</b>	<b>-24</b>	<b>-10</b>	<b>-55</b>	<b>-47</b>
기타영업손익	0	0	0	0	0	0	0	0	0	0
지분법손익	0	0	0	0	0	0	0	0	0	0
금융수익	12	10	21	13	11	3	3	3	2	2
금융비용	18	10	5	5	9	5	0	2	2	2
기타영업외손익	-10	6	4	-12	-25	-4	1	-0	-22	-5
<b>법인세차감전순이익</b>	<b>214</b>	<b>77</b>	<b>-11</b>	<b>92</b>	<b>-86</b>	<b>26</b>	<b>-18</b>	<b>-9</b>	<b>-85</b>	<b>-49</b>
법인세비용	25	46	-20	57	-11	16	-9	-8	-10	-1
<b>당기순이익</b>	<b>189</b>	<b>31</b>	<b>9</b>	<b>36</b>	<b>-75</b>	<b>10</b>	<b>-9</b>	<b>-0</b>	<b>-75</b>	<b>-48</b>

- 기준: 주재무제표 / 기타영업외손익에는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관련손익 포함되어 있음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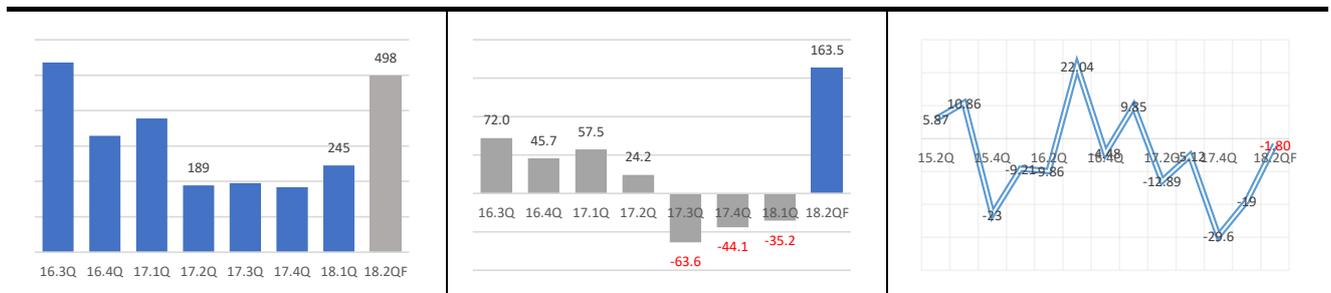
매출액	영업이익	발간일	추정기관	매출액	영업이익
		18.04.06	키움	2,041	147
		18.04.02	리딩	2,119	157
		18.04.02	유안타	2,417	169
<b>AVG</b>				<b>2,192</b>	<b>158</b>

자료: NEW / 세종기업데이터

▶ 분기별 매출액(억원)

▶ 전년동기대비 매출액 증감률(YoY%)

▶ 분기별 영업이익률(%)



자료: NEW / 세종기업데이터

▶ 손익계산서(별도)

단위: 억원

구분	15.3Q	15.4Q	16.1Q	16.2Q	16.3Q	16.4Q	17.1Q	17.2Q	17.3Q	17.4Q	18.1Q
매출액	294	200	208	80	474	277	309	95	97	70	96
영업이익	38	-47	-29	-24	129	3	21	-45	-2	-27	-49
OPM	13.0	-23.6	-13.9	-30.7	27.1	1.2	6.7	-46.9	-2.6	-38.4	-51.2
순이익	37	-32	-28	-59	115	-4	45	-32	-3	-51	-46
NPM	12.6	-16.0	-13.3	-73.6	24.3	-1.4	14.5	-33.5	-3.1	-73.0	-47.4

자료: NEW / 세종기업데이터

- 매출액 증감률(%)

구분	15.3Q	15.4Q	16.1Q	16.2Q	16.3Q	16.4Q	17.1Q	17.2Q	17.3Q	17.4Q	18.1Q
QoQ	97.3	-31.9	4.0	-61.7	494.8	-41.6	11.4	-69.2	1.9	-28.2	38.1
YoY	255.3	230.5	70.6	-46.5	61.3	38.2	48.1	19.2	-79.6	-74.9	-6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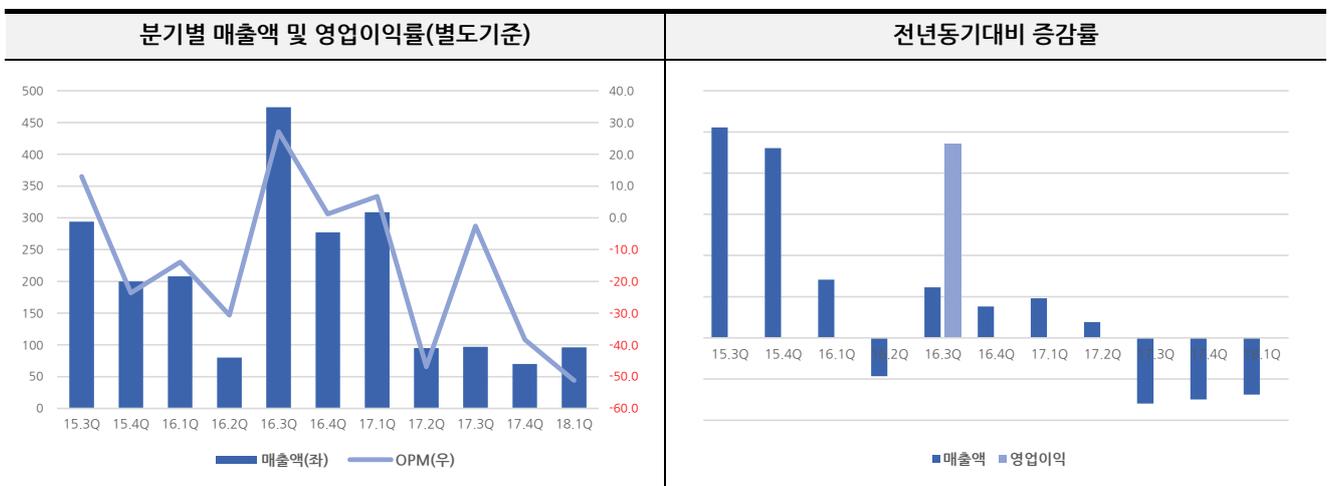
- 영업이익 증감률(%)

구분	15.3Q	15.4Q	16.1Q	16.2Q	16.3Q	16.4Q	17.1Q	17.2Q	17.3Q	17.4Q	18.1Q
QoQ	164.0	적전	적지	적지	흑전	-97.4	519.5	적전	적지	적지	적지
YoY	흑전	적지	적지	적전	235.6	흑전	흑전	적지	적전	적전	적전

- 순이익 증감률(%)

구분	15.3Q	15.4Q	16.1Q	16.2Q	16.3Q	16.4Q	17.1Q	17.2Q	17.3Q	17.4Q	18.1Q
QoQ	116.8	적전	적지	적지	흑전	적전	흑전	적전	적지	적지	적지
YoY	흑전	적지	적전	적전	211.8	적지	흑전	적지	적전	적지	적전

자료: NEW / 세종기업데이터



자료: NEW / 세종기업데이터

▶ 현금흐름표

단위: 억원, 주재무제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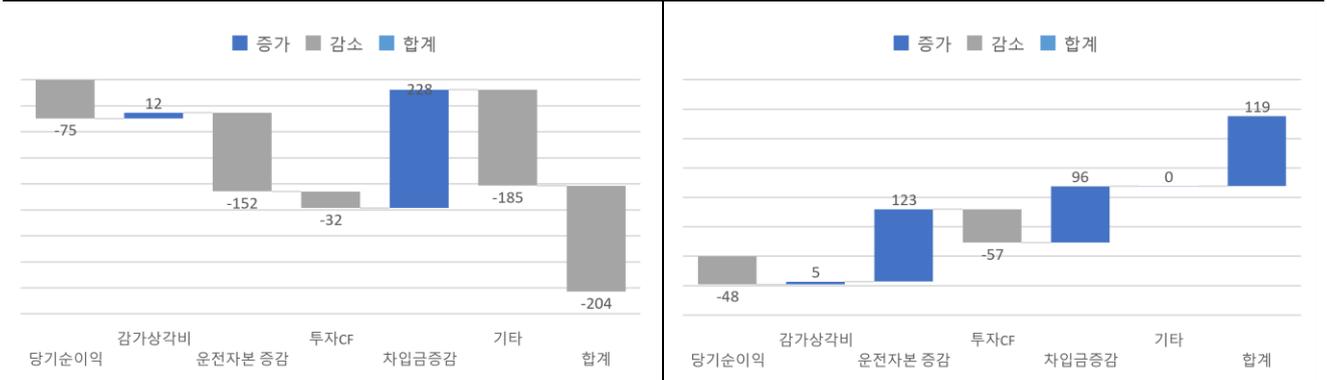
구분	연간					분기				
	2013	2014	2015	2016	2017	2017/03	2017/06	2017/09	2017/12	2018/03
기초의 현금	242	361	1,072	771	581	581	901	885	595	376
영업CF	73	-80	-194	39	-215	356	-254	-245	-72	80
당기순이익	189	31	9	36	-75	10	-9	-0	-75	-48
감가상각비	6	5	5	9	12	2	2	3	4	5
운전자본 증감 및 기타	-123	-115	-208	-5	-152	343	-247	-247	-0	123
투자CF	-18	-18	-211	-268	-32	-31	133	-43	-91	-57
유형자산의 취득	2	8	1	222	123	10	32	35	46	36
재무CF	65	808	101	38	43	-2	105	-2	-58	96
차입금 증감	26	-11	69	38	228	-2	105	-2	127	96
기타	39	819	32	0	-185	0	0	0	-185	0
환율변동 효과	-0	0	3	1	-0	-3	1	0	2	-0
현금의 증감	119	710	-301	-190	-204	320	-16	-290	-219	119
기말의 현금	361	1,072	771	581	376	901	885	595	376	495

자료: NEW / 세종기업데이터

▶ 최근 결산년도 순현금흐름

▶ 최근 분기 순현금흐름

단위: 억원



- 순현금흐름은 환율변동 효과가 반영되지 않는 수치

▶ S-Guidance

단위: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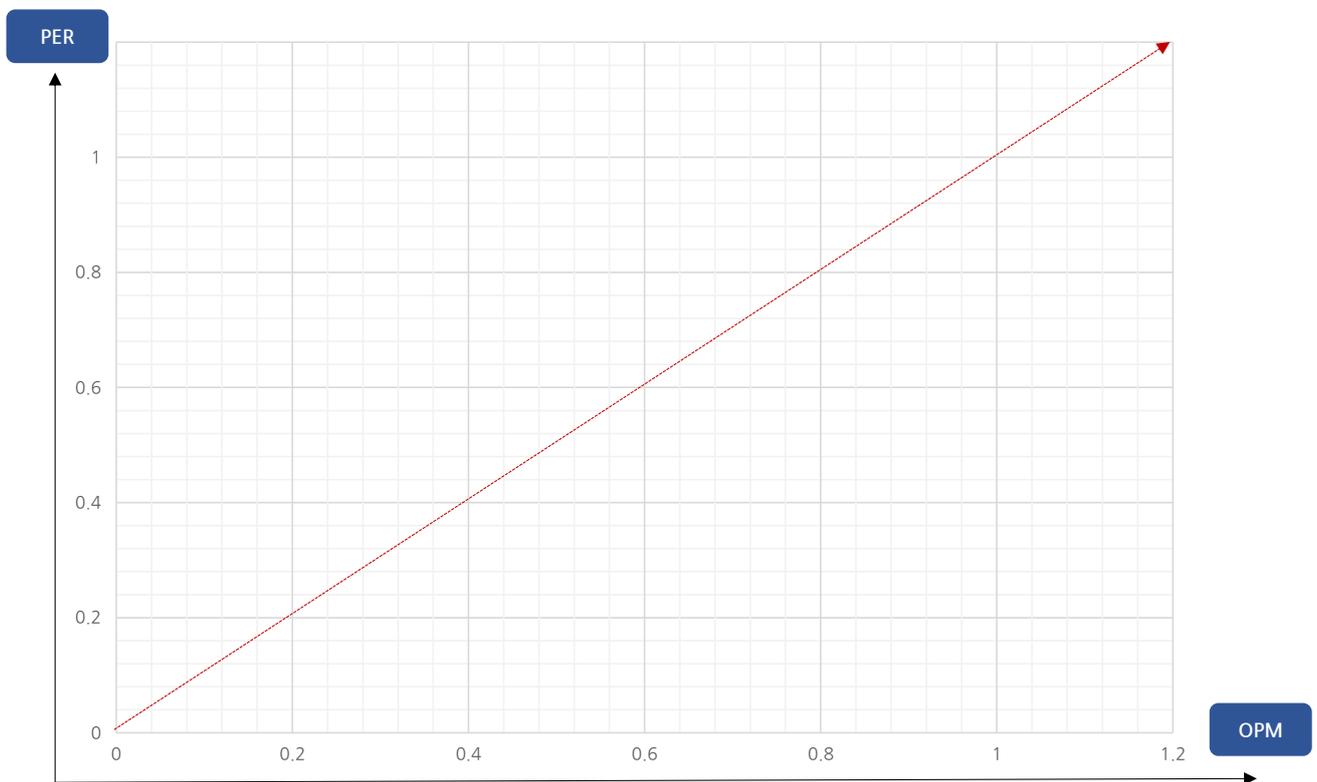
전설적 투자자	투자기준	실제 수치			True/False
벤처민 그레이엄	- 유동자산이 유동부채 2배이상(유동비율 200% 이상) : 최근 분기기준	유동자산	유동부채	유동비율	FALSE
		1,503	1,013	148.3	
	-순유동자산(유동자산-유동부채) > 장기차입금 : 최근 분기기준	순유동자산	장기차입금	차이	TRUE
		490	321	169	
	- 최근 10년간 EPS 성장률이 30% 이상 : 과거 3년은 10년동안 첫 3개년을 의미 : EPS 대신 영업이익으로 계산	과거 3년	최근 3년	YoY	FALSE
		-	-4	-	
	- 최근 5년간 적자를 기록하지 않는 기업 : 영업이익 기준이며, 당기순이익 적자 가능성 존재	T-2	T-1	T	FALSE
		-25	66	-52	
- PER 15배 미만 : 영업이익 기준	PER(시가총액 / 영업이익)			FALSE	
	40.02				
- PER x PBR 22 미만 : 영업이익 기준(순이익 X), 자본총계는 최근분기 기준	PER	PBR	X	FALSE	
	40.02	1.59	63.60		
- 꾸준한 배당 : 총 배당금액(주당 배당금 X)	T-2	T-1	T	FALSE	
	0	0	0		
- 중소형주보다 대형주 선호(매출액 4,000억원 이상)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FALSE	
	1,010				
워렌버핏	- 지난 10년간 강력한 EPS 상승기조 : 영업이익 역성장 1번 이하이면 T, 아니면 F	-			FALSE
	- 10년 평균 ROE 15% 이상 : ROE = 영업이익 / 자본총계	10년 평균 ROE(%)			TRUE
		17.63			
	- 유보이익의 활용 : 최근 결산년도 영업이익 - 10년전 영업이익 / 이익잉여금 -> 15% 이상	유보이익률(%)			FALSE
	-22.68				
- 부채규모는 연간 순이익의 5배 이하 : 최근 4분기 영업이익 합기준으로 계산	부채총계	OP	배수	FALSE	
	1,342	-134	-10.02		
피터린치	- 최근 3년 연속 EPS 성장률 20% 이상 : T/T-1/T-2는 전년대비 영업이익 증감률	T-2	T-1	T	FALSE
		적전	흑전	적전	
	- 최근 분기 EPS가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 전년동기대비 영업이익 증감률 기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FALSE
		적전			
- PEG 1이하, 0.5 이하면 매력도 ↑ : PEG = PER / EPS 성장률(연간기준) : 이익은 영업이익 기준	PER	성장률	PEG	FALSE	
	40.02	적전	-		
- 부채비율 80% 미만 : 연간(최근 결산년도), 분기(최근 분기)	연간	분기	AVG	FALSE	
	96.16	106.58	101.37		
자체평가기준	- 전년동기대비 매출액/영업이익 증감률 > 0	FALSE	- 전분기 및 전년동기대비 매출액/영업이익 증가		FALSE
	- 최근 4분기 연속 영업이익률 5% 이상	FALSE	- 최근 4분기 OPM > 직전 4분기 OPM		FALSE
종합 등급	A등급: TRUE 수가 16 ~ 20개 / B등급: TRUE 수가 12 ~ 15개 C등급: TRUE 수가 08 ~ 11개 / D등급: TRUE 수가 07 ~ 04개 / F 등급: 3개이하				F

▶ Valuation

기준일: [2018/07/02]

PBR History		기업가치평가모형				
		구분	적정주가(원)	Up/Down Side Potential(%)	상대가치평가법	
		DCF	-4,490	-161.51	PER	-15.07
		RIM	6,316	-13.47	PBR	1.59
		AVG	913	-87.49	적정 PBR	-3.20
		현재가	7,300		PSR	2.46
- Fair Value: 한 주당 기업가치 - Fair Value는 각 모형별 공식에 의해서 산출됨. - 경우에 따라 기업가치가 음의 값으로 표시될 수도 있음. - 모형별 주요 가정을 확인이 필요. - 단위: 원, %				PER 및 PSR: 최근 4분기합 기준, PBR: 최근분기 자본총계 기준 적정 PBR = $K - g / \text{Roe} - g$ K = 요구수익률, g = 성장률 Roe = 최근 4분기 영업이익이익합		

▶ 방사형 차트



- PER은 당기순이익이 아닌 영업이익 기준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영업이익은 최근 4분기합입니다. 또한 PER 100 이상인 기업, 지주회사들은 제외하였습니다.

		해석방법: 유사 이익률을 기록한 기업들의 평균 Valuation	
- 평균 PER	-	- 평균 PER 적용시 환산 시총(억원)	-
- NEW PER	-14.93	- 현재 시가총액(억원)	2,001
		- Up/Down Side Potential (%)	-

- 평균 PER은 방사형 차트에 나타난 기업들의 평균입니다.

▶ Valuation(잔여이익모델, Residual Income Model, RIM)

단위: 억원, %

구분	2017	2018(E)	2019F	2020F	2021F	2022F	2023F	2024F	2025F	2026F	2027F
영업이익	-52	64	-22	-21	-19	-18	-17	-16	-15	-14	-14
자본총계	1,307	1,739	2,313	3,076	4,092	5,444	7,241	9,633	12,813	17,045	22,673
ROE	-3.98	3.68	-0.94	-0.67	-0.47	-0.34	-0.24	-0.17	-0.12	-0.08	-0.06
Spread		-2.16	-6.78	-6.51	-6.32	-6.18	-6.08	-6.01	-5.96	-5.93	-5.90
RI		-1	1	1	1	1	1	1	1	1	1
PV of RI		-1	-1	-1	-1	-1	-1	-0	-0	-0	-0

Cost Of Equity(COE, %)	5.8441	<p><b>&lt;잔여이익모델&gt;</b>                      잔여이익모델이란 기업의 미래 예상실적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출한 초과이익을 통해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모형이다. 주주입장에서는 투자원금인 자기자본과 자기자본비용을 초과하는 이익, 즉 잔여이익의 현재가치를 합한 금액으로 산출된다.</p> <p>일반적으로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위의 산식은 영업이익으로 모형을 설계하였다. 따라서 ROE = 영업이익 / 자본총계이며, 나머지 주요 가정은 현금흐름할인법(DCF)와 같다.</p>
베타	0.86882	
Beginning Shareholder's equity	1,739	
PV of Forecast Period RI	-7	
Equity Value(억원)	1,731	
Fair Price(원)	6,316	
Current Price(원)	7,300	
- Up/Down Side Potential (%)	-13.67	

▶ 주요가정

단위: %

- 매출액 증가율 = 5년 평균 CAGR - 영업이익 = 3년 평균 - 자본총계 증가율 = 5년 평균 CAGR - ROE = 영업이익 / 자본총계 - COE = WACC	구분	CAGR	구분	AVG
	매출액 증가율	-5.65	영업이익률	-1.08
	자본총계 증가율	33.02	할인율(WACC)	5.84

▶ Valuation(현금흐름할인법, Discounted Cash Flow, DCF)

단위: 억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E)	2019F	2020F	2021F	2022F
매출액	1,264	620	826	1,257	945	2,134	2,013	1,900	1,792	1,691
영업이익	191	61	-25	66	-52	64	-22	-21	-19	-18
<b>NOPLAT</b>	<b>149</b>	<b>47</b>	<b>-20</b>	<b>52</b>	<b>-40</b>	<b>50</b>	<b>-17</b>	<b>-16</b>	<b>-15</b>	<b>-14</b>
+ 유형자산상각비	1	2	3	8	12	12	12	12	12	12
+ 무형자산상각비	5	3	3	1	0	0	0	0	0	0
<b>총현금흐름</b>	<b>155</b>	<b>52</b>	<b>-15</b>	<b>60</b>	<b>-29</b>	<b>61</b>	<b>-5</b>	<b>-5</b>	<b>-4</b>	<b>-3</b>
총투자	10	13	3	231	137	79	79	79	79	79
<b>Free cash flow (FCF)</b>	<b>146</b>	<b>39</b>	<b>-17</b>	<b>-171</b>	<b>-166</b>	<b>-17</b>	<b>-84</b>	<b>-83</b>	<b>-82</b>	<b>-81</b>
PV of FCF						-17	-79	-74	-69	-65

- Sum of PV (A)	-305	<p><b>&lt;현금흐름할인법&gt;</b>                      현금흐름할인법이란, 미래 영업활동을 통해 기대되는 순현금을 할인율로 할인하여 기업가치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할인율은 통상 자본원천에 따라 각각의 자본비용을 산출하고 각 자본의 구성비율로 가중평균한 기대수익률인 가중평균자본비용 (Weighted Average of Capital Cost: WACC)을 사용한다.</p>
- Terminal Value (B)	-864	
- Net debt (C)	62	
- Equity value (A+B-C)	-1,231	
- Price of a share	-4,490	
- Current Price	7,300	
- Up/Down Side Potential (%)	-161.51	

▶ 주요가정

단위: %

- 매출액 증가율, 유무형자산상각비 = 5년 평균 CAGR - 영업이익 = 3년 평균 - 총투자 = 5년 평균 - 법인세율 = 22% - 총투자 = 유무형자산의 취득(현금흐름표) - 총투자 예상 = 5년 평균 - 할인율 = WACC - 무위험수익률(Rf) 가정 = 1.5% - 시장리스크프리미엄(Rm-Rf) = 5% - 영구성장률 = 1% - Terminal Value는 기존 수치에서 20% 할인하여 반영	구분	CAGR	구분	AVG
	매출액 증가율	-5.65	영업이익률	-1.08
	유형자산상각비 증가율	-	차입금 의존도	14.36
	무형자산상각비 증가율	-	할인율(WACC)	5.84
	유형자산취득 증가율	-	영구성장률	1.00
	무형자산취득 증가율	-		
	유동자산 증가율	9.76		
	현금성자산 증가율	0.82		
	유동부채 증가율	5.08		
	유형자산 증가율	-		
	자본총계 증가율	33.02		
	단기차입금 증가율	14.51		
장기차입금 증가율	18.26			

▶ Q&A

**Q) 영화관 사업은 성장성도 둔화되고 있는데, CGV 등 대기업의 견제를 받는 것 아닌가?**

A) 영화관 사업을 공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신도림에는 랜드마크에 한 사이트가 있지만 대부분 지방에 오픈을 계획하고 있다. 지방에서는 경쟁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

**Q) HAUCE가 2대 주주인데, 한중 관계 악화에 따라 지분 정리 가능성도 있는가?**

A) HAUCE는 2014년에 2대 주주로 주당 1만 5천원에 들어왔다. 주가가 6천원까지 빠졌을 때도 아무 언급이 없었다. 사드 사태 이후 공식적으로는 중국 사업이 전부 중단되었지만 2대 주주이기 때문에 계속 협의는 하고 있다. HAUCE가 처음 들어올 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그때는 우리가 영화만 했는데 지금은 드라마, 음악 등 여러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협의하는 분야도 다양해졌다. 아직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긴 조심스럽다. 국가적 사태가 마무리되면 그쪽이 2대 주주이니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Q) 독전은 BEP를 넘겼는데, 추가 매출에서 NEW가 가져가는 비중은 얼마나 되는가?**

A) 극장 클로징 후 정산이 이루어진다. 수익구조는 BEP 넘는 부분을 100이라 했을 때 투자자가 6, 배급사가 4를 가져간다. 투자자는 지분대로 수익을 인식한다. 투자자 6 중, 우리 지분만큼 수익으로 가져가는데 평균적으로 작품마다 25~30% 정도 된다.

**Q) 미국에 판권을 팔았다고 했는데 수익은 얼마나 되는가?**

A) MG+RS 구조인데, RS는 현지에서 상영했을 때 원가를 빼고 BEP를 넘는 수준에서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다. MG는 판매 시점인 1분기에 인식했고 RS는 인식하지 못했다. 역력은 넷플릭스에 팔았고, 독전은 미국에 판권을 팔아 현지 개봉 이후 수익으로 인식될 예정이다.

**Q) 다른 쪽 판권 매출도 있는가?**

A) 여러 나라에서 판매는 되었고,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온 나라가 현재까진 미국이다.

**Q) 구미와 경주에 각각 CAPEX가 20~30억 집행된 것인가?**

그렇다. 각각 관객 30만이 BEP이다. 지방 사이트는 임차료가 적고, 신도림은 우리 건물이라 임차료가 없다. 신도림은 BEP까지 올라오는 속도가 좀 더 빠를 것 같다. 아직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6월 그랜드 오픈 이후 홍보를 좀 더 하면 빠르게 손님이 늘지 않을까 생각한다.

**Q) 신도림 영화관은 BEP가 언제쯤 달성할 것으로 보는가?**

A) 2018년은 지켜보는 한 해이다. 2018년 절반을 리모델링 시간으로 보냈다. 기존에 CGV가 있을 때 100만 관객이 보던 사이트여서 빨리 그 수준까지 올라오는 것이 중요하다. BEP 달성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2018년 연말까지 총 5개 사이트가 오픈된다면, 영화관 전체적으로는 BEP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Q) NEW는 콘셉트가 강한 영화를 만드는 것 같다.**

A) 대작이나 특정 콘셉트를 떠나서 재미있는 영화는 사람들이 본다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돈 되는 영화에 집중하는 편이다.

**Q) 안시성에 대해 내부에서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가?**

A) 안시성 촬영은 2018년 2월 말에 완료되었고 현재는 후반 작업 중이다. 영화 촬영이 끝날 때부터 자신감이 많았다. 연말 개봉이 타깃이었으나 안시성이 잘 나와서 추석 시즌으로 개봉 시기를 앞당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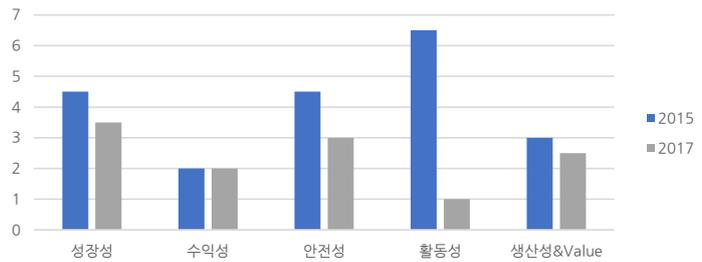
**Q) 창궐은 언제 개봉 예정인가?**

A) 창궐은 조선판 좀비물이며 여름 개봉을 생각했지만, 현재는 조울 중이다. 2018년 여름 개봉 여부는 반반이다. 상황을 보아야 할 것 같다.

▶ 재무분석

① Summary

구분	2015	2017	2018.1Q
성장성	4.5	3.5	3.5
수익성	2	2	1
안전성	4.5	3	3.5
활동성	6.5	1	1.5
생산성&Value	3	2.5	2.5



자료: NEW / 세종기업데이터

▶ Radial Shape Chart



자료: NEW / 세종기업데이터

▶ 재무비율별 구성요소 및 상세조건

성장성	구성요소	- 총자산, 유형자산, 유동자산, 재고자산, 자기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증가율
	상세조건	- 'T-1기 증가율 < T기 증가율', '0 < T기 증가율' 각각 만족하면 1점 아니면 0점
수익성	구성요소	- 총자산세전순이익률, 기업세전순이익률, 기업순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영업이익률, EBITDA 대 매출액, 차입금 평균이자율, 금융비용 대 총비용
	상세조건	- 'T-1기 이익률 < T기 이익률', '0 < T기 이익률' 각각 만족하면 1점 아니면 0점
안전성	구성요소	- 부채비율, 유동비율, 현금비율, 비유동비율, 차입금의존도, 매출채권 대 매입채무, 순운전자본 대 총자본, 자기자본비율
	상세조건	- 'T-1기 대비 T기 재무안전성이 개선되면 1점 아니면 0점' - 5개년도 평균보다 재무안전성이 개선되면 1점 아니면 0점, 부채비율 및 비유동비율 100%, 유동비율 200% 이상이면 1점, 아니면 0점으로 계산
활동성	구성요소	- 총자산, 자기자본, 경영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재고자산, 매출채권, 매입채무회전율
	상세조건	- 'T-1기 대비 T기 활동성이 개선되면 1점 아니면 0점 / 5개년도 평균보다 개선되면 1점 아니면 0점
생산성&Value	구성요소	- 총자본투자효율, 설비투자효율, 기계투자효율, 노동소득분배율, PER, PBR, 적정PBR, PSR
	상세조건	- 'T-1기 대비 T기 활동성이 개선되면 1점 아니면 0점' - PER 10, PBR 1, 적정 PBR < PBR, PSR 1 이하면 1점, 아니면 0점

▶ 재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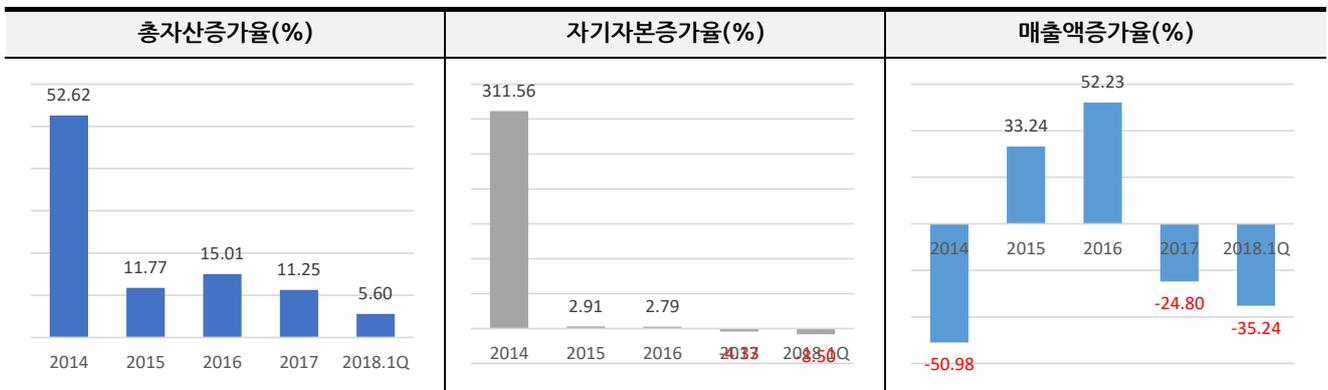
② 성장성 분석

: 당해연도 기업의 자산, 자본 등 경영규모와 기업활동의 성과가 전년에 비하여 어떻게 변동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기업의 경쟁력이나 미래의 수익창출능력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1Q	산출공식
총자산증가율	52.62	11.77	15.01	11.25	5.60	$((\text{당기말 총자산} / \text{전기말 총자산}) \times 100) - 100$
유형자산증가율	100.00	-18.75	5312.82	26.88	32.00	$((\text{당기말 유형자산} / \text{전기말 유형자산}) \times 100) - 100$
유동자산증가율	58.89	10.37	-9.88	0.79	-11.40	$((\text{당기말 유동자산} / \text{전기말 유동자산}) \times 100) - 100$
재고자산증가율	-	-	-	-	-	$((\text{당기말 재고자산} / \text{전기말 재고자산}) \times 100) - 100$
자기자본증가율	311.56	2.91	2.79	-4.33	-8.50	$((\text{당기말 자기자본} / \text{전기말 자기자본}) \times 100) - 100$
매출액증가율	-50.98	33.24	52.23	-24.80	-35.24	$((\text{당기 매출액} / \text{전기매출액}) \times 100) - 100$
영업이익 증가율	-68.27	적전	흑전	적전	적전	$((\text{당기 영업이익} / \text{전기 영업이익}) \times 100) - 100$
당기순이익 증가율	-83.82	-69.95	288.71	적전	적전	$((\text{당기 당기순이익} / \text{전기 당기순이익}) \times 100) - 100$

자료: NEW / 세종기업데이터



자료: NEW / 세종기업데이터

성장성 분석 용어 설명	
총자산증가율	- 기업에 투하된 총자산이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전체적인 성장성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유형자산증가율	-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어느정도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기업의 설비투자동향 및 성장잠재력 파악에 활용된다.
유동자산증가율	-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하여 소유하는 유동자산이 얼마만큼 늘어났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재고자산증가율	- 기업이 판매 또는 제조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상품, 제품, 원재료, 제품품 등의 재고자산이 어떻게 변동되었는가를 설명하는 지표이다.
자기자본증가율	- 내부유보 또는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자기자본이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매출액증가율	- 전기 매출액에 대한 당기 매출액의 증가율로서 기업의 외형 신장세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 재무분석

③ 수익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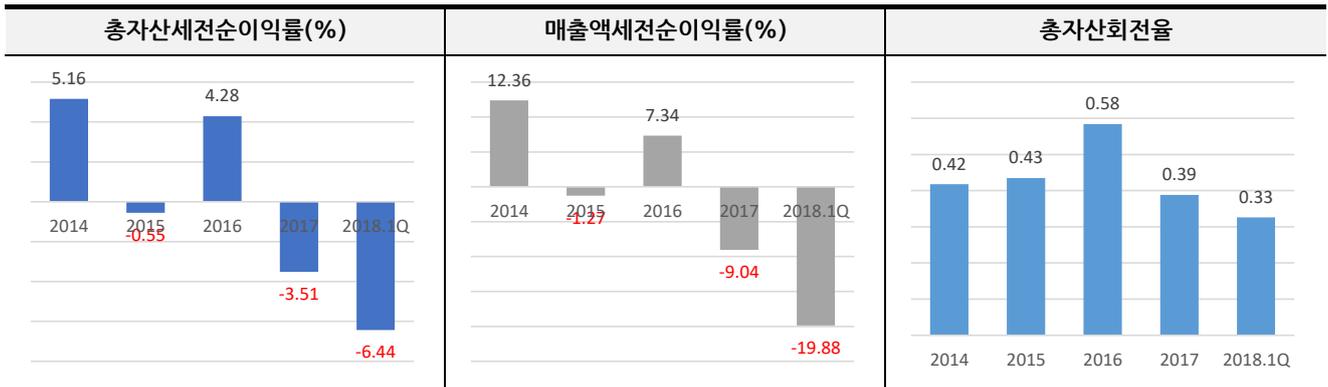
: 일정기간 동안의 기업의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비율로서 투자된 자본 또는 자산, 매출수준에 상응하여 창출한 이익의 정도를 나타내 자산이용의 효율성, 이익창출능력 등에 대한 평가는 물론 영업성과를 요인별로 분석 및 검토하기 위한 지표로 이용된다.

: 참고로 저장(stock) 개념의 재무상태표 항목과 유량(flow) 개념의 손익계산서 항목을 동시에 고려하는 혼합비율의 경우 재무상태표 항목은 기초잔액과 기말잔액을 평균하여 사용한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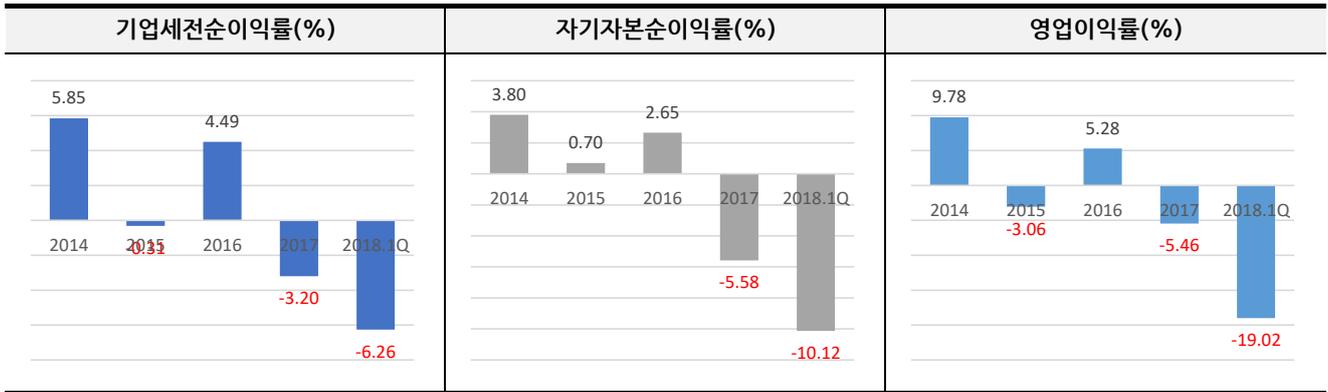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1Q	산출공식
총자산세전순이익률	5.16	-0.55	4.28	-3.51	-6.44	(세전순이익 / 총자산(평균)) x 100
- 매출액세전순이익률	12.36	-1.27	7.34	-9.04	-19.88	(세전순이익/매출액) x (매출액/총자산(평균))
- 총자산회전율	0.42	0.43	0.58	0.39	0.33	매출액 / 총자산(평균)
기업세전순이익률	5.85	-0.31	4.49	-3.20	-6.26	((세전순이익 + 이자비용) / 총자본(평균)) x 100
기업순이익률	2.74	0.73	1.87	-2.76	-5.15	((당기순이익 + 이자비용) / 총자본(평균)) x 100
자기자본순이익률	3.80	0.70	2.65	-5.58	-10.12	(당기순이익 / 자기자본(평균)) x 100
영업이익률	9.78	-3.06	5.28	-5.46	-19.02	(영업이익 / 매출액) x 100
EBITDA 대 매출액	14.75	-0.08	8.38	-7.03	-16.97	(세전순이익 + 이자비용 + 유무형감가상각비) / 매출액 x 100
차입금 평균이자율	5.28	2.82	2.08	2.15	1.07	(이자비용 / (회사채+장, 단기차입금)의 평균) x 100
금융비용 대 총비용	1.77	0.54	0.38	0.76	0.66	(이자비용 / (매출원가 + 판매비와관리비 + 영업외비용)) x 100

자료: NEW / 세종기업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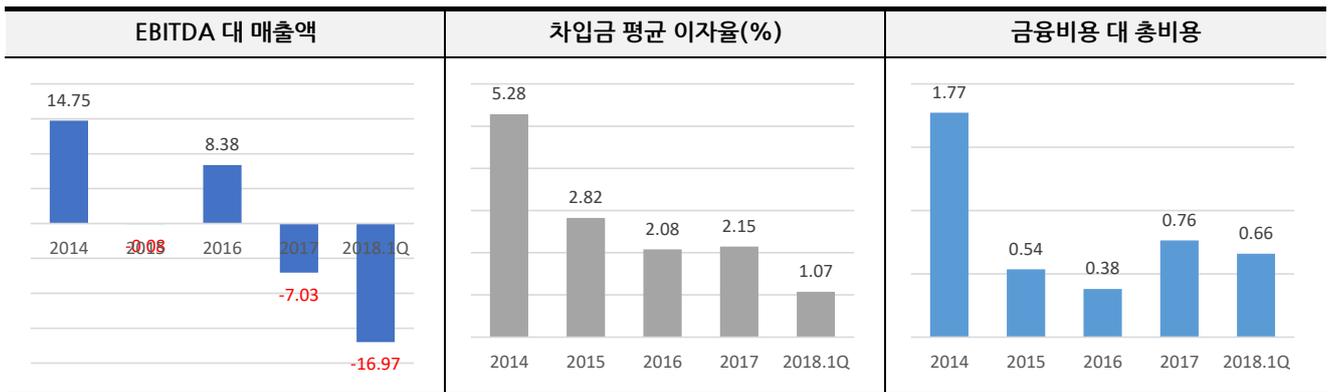


자료: NEW / 세종기업데이터

수익성분석용어설명	
총자산세전순이익률	-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 운용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총자산에 대한 비율로 측정한다. 한편 이 비율의 변동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 지표를 매출액세전순이익률과 총자산회전율의 곱으로 분해하여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높으나, 총자산회전율이 낮았다면 판매마진은 개선된 반면, 기업의 판매활동은 부진하였음을 의미한다.



자료: NEW / 세종기업데이터



기업세전순이익률(%)

수익성분석용어설명	
기업세전순이익률	- 자금원천에 관계없이 기업에 투하된 총자본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세전순이익에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을 총자본과 대비한 것이다. 따라서 기업가의 경영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이용되고 있다.
기업순이익률	- 당기순이익과 이자비용의 합계액을 총자본과 대비한 비율로서 기업에 투하된 총자본의 종합적인 최종 성과를 나타낸다.
자기자본순이익률	- 자기자본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로서 ROE로 널리 알려져 있다. 자본조달 특성에 따라 동일한 자산구성 하에서도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자본구성과의 관계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영업이익률	-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한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제조 및 판매활동과 직접 관계된 순수한 영업이익만을 매출액과 대비한 것으로 영업효율성 측정에 유용하다.
EBITDA 대 매출액	- EBITDA는 이자 및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를 더하여 산출된다. 회계상의 순이익이 금융비용이나 감가상각비 등 영업외적 요인이나 회계처리방식의 차이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EBIT와 EBITDA는 이러한 영향이 배제된 경영성과를 측정할 수 있어서 수익성 판단지표로 유용하게 쓰인다.
차입금 평균이자율	- 회사채, 금융기관차입금 등 이자부부채에 대한 금융비용의 비율로서 차입금에 대한 종합적인 평균이자율을 의미하며, 이 비율과 다른 수익성 지표를 비교해 봄으로써 타인자본의 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판단할 수 있다.
금융비용 대 총비용	- 총비용 중 금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차입금 의존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 재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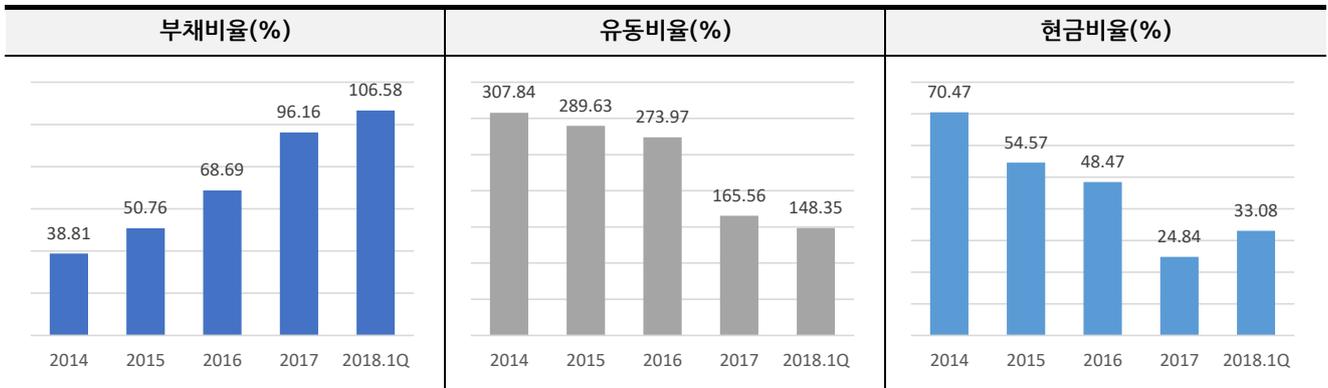
④ 안전성 분석

: 자산 및 자본의 관계비율은 재무상태표 각 항목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정태비율로서 단기채무 지불능력인 유동성과 경기대응 능력인 안정성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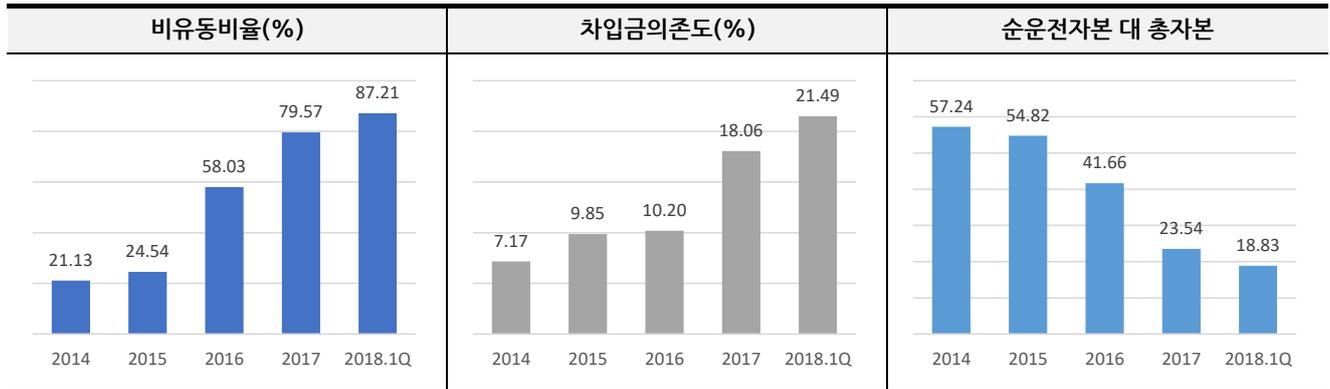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1Q	산출공식
부채비율	38.81	50.76	68.69	96.16	106.58	(부채총계 / 자본총계) x 100
유동비율	307.84	289.63	273.97	165.56	148.35	(유동자산 / 유동부채) x 100
현금비율	70.47	54.57	48.47	24.84	33.08	(현금 및 현금성자산 / 유동부채) x 100
비유동비율	21.13	24.54	58.03	79.57	87.21	(비유동자산 / 자기자본) x 100
차입금의존도	7.17	9.85	10.20	18.06	21.49	(총차입금 / 총자본) x 100
매출채권 대 매입채무	37.80	22.39	48.17	58.50	37.77	(매출채권 / 매입채무) x 100
순운전자본 대 총자본	57.24	54.82	41.66	23.54	18.83	(유동자산 - 유동부채) / 총자본 x 100
자기자본비율	72.04	66.33	59.28	50.98	48.41	(자본총계 / 자산총계) x 100

자료: NEW / 세종기업데이터



자료: NEW / 세종기업데이터

안전성 분석 용어 설명	
부채비율	- 부채비율은 타인자본과 자기자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안정성 지표로서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부채비율은 자기자본비율과 역(逆)의 관계에 있어 자기자본비율이 높을수록 부채비율은 낮아지게 된다. 경영자입장에서는 단기채무 상환의 압박을 받지 않고 투자수익률이 이자율을 상회하는 한 타인자본을 계속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채권회수의 안전성을 중시하는 채권자는 부정적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기업의 부채비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추가로 부채를 조달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다한 이자비용의 지급으로 수익성도 악화되어 지급불능 사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유동비율	- 단기채무에 충당할 수 있는 유동자산의 규모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단기지급능력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유동비율이 높을수록 단기지급능력이 양호하다고 볼 수 있으나 과다한 유동자산 보유는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수익성을 저해할 수 있다.
현금비율	- 유동부채에 대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비율로서 기업의 초단기 채무지급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다. 2007년부터 회계기준 변경으로 단기금융상품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서 단기투자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자료: NEW / 세종기업데이터

안전성분석용어설명	
비유동비율	- 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고정화 위험을 측정하는 비율로서 운용기간이 장기에 속하는 비유동자산을 어느 정도 자기자본으로 충당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비유동비율은 일반적으로 100% 이하를 양호한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자금이 고착되는 비유동자산에 대한 투자는 가급적 상환기한이 없는 자기자본으로 충당하는 것이 기업의 장기 안전성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차입금의존도	- 총자본 중 외부에서 조달한 차입금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차입금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어 수익성이 저하되고 안전성도 낮아지게 된다.
매출채권 대 매입채무	- 기업간 신용관계를 나타내는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대비시킨 것으로 기업의 자금관리에 중요한 지표로 이용된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유동비율은 높게 나타나지만 매출채권의 과도한 보유는 오히려 자금사정의 악화를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순운전자본 대 총자본	- 지급능력의 기초가 되는 순운전자본의 총자본에 대한 비율로서 높을수록 유동성이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비율은 총자본총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재무구조 지표이다. 자기자본은 금융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기업이 운용할 수 있는 자본이므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안전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재무분석

⑤ 활동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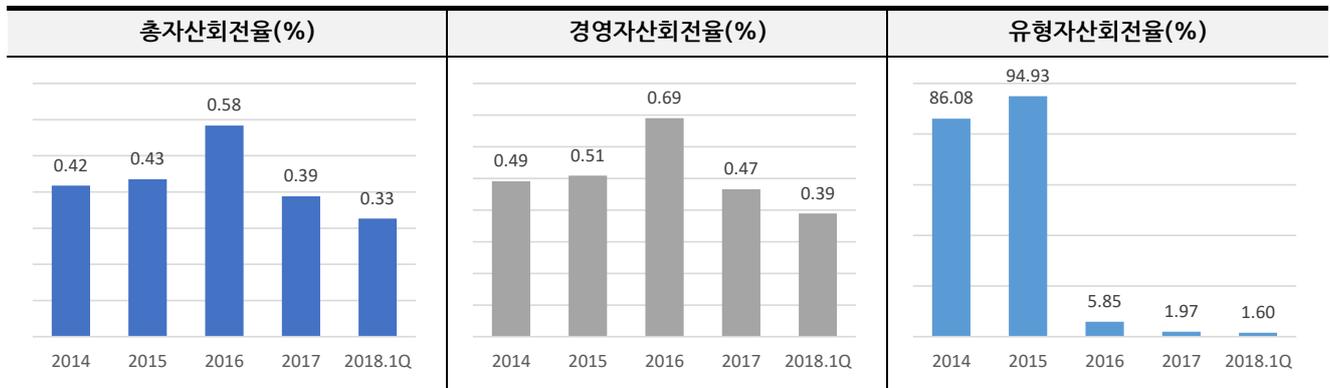
: 자산 및 자본의 회전율은 기업에 투하된 자본이 기간중 얼마나 활발하게 운용되었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활동성 분석이라고 한다. 기업은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투입된 자본을 끊임없이 회전시키는데 이에 따른 성과는 매출액으로 대표될 수 있다.

따라서 회전율을 측정하는 기본항목은 매출액이며, 기업의 활동성은 매출액과 각 자산 및 자본 항목에 대한 회전배수로 측정된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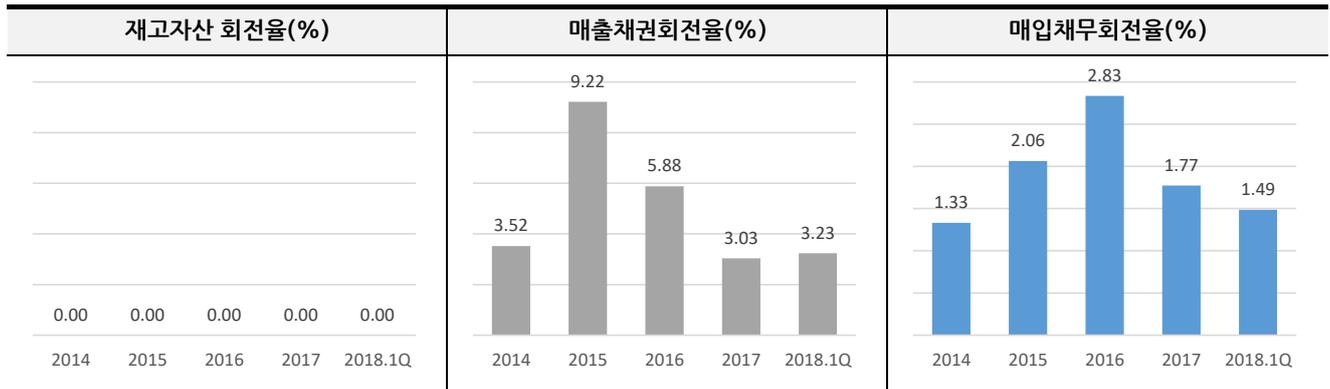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1Q	산출공식
총자산회전율	0.42	0.43	0.58	0.39	0.33	매출액 / 총자산(평균)
자기자본회전율	0.77	0.63	0.93	0.71	0.62	매출액 / 자기자본(평균)
경영자산회전율	0.49	0.51	0.69	0.47	0.39	매출액 / (총자산-(건설중인자산+투자자산)의 평균
비유동자산회전율	2.52	2.76	2.25	1.03	0.83	매출액 / 비유동자산(평균)
유형자산회전율	86.08	94.93	5.85	1.97	1.60	매출액 / 유형자산(평균)
재고자산회전율	-	-	-	-	-	매출액 / 재고자산(평균)
매출채권회전율	3.52	9.22	5.88	3.03	3.23	매출액 / 매출채권(평균)
매입채무회전율	1.33	2.06	2.83	1.77	1.49	매출액 / 매입채무(평균)

자료: NEW / 세종기업데이터



자료: NEW / 세종기업데이터

활동성분석용어 설명	
총자산회전율	- 총자산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에 투하한 총자산의 운용효율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이다.
자기자본회전율	- 자기자본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했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자기자본이용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경영자산회전율	- 영업활동에 직접 투입/활용되고 있는 경영자산의 효율성을 평가하는데 이용되는 지표이다.
비유동자산회전율	- 비유동자산의 효율적 이용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자본의 고정화 정도를 판단하는 수단이 되며, 유동성분석에 있어서도 유용한 보조지표로 이용될 수 있다.
유형자산회전율	- 유형자산의 이용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자산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유용하다. 이 비율이 높으면 비유동자산의 유지를 위하여 지출되는 상각비, 보험료, 수선비 등의 고정비가 제품단위당 체감적으로 배분되어 원가절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영업규모에 비해 설비투자가 부진한 경우에도 이 비율이 높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해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자료: NEW / 세종기업데이터

<b>재고자산회전율</b>	<p>- 재고자산회전율은 매출액을 재고자산으로 나눈 비율로서 재고자산의 회전속도, 즉 재고자산이 현금 등 당좌자산으로 변화하는 속도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상품의 재고손실 방지 및 보험료, 보관료의 절약 등 재고자산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p> <p>그러나 재고를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필요한 적정수준 이하로 유지하여 수요변동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 비율은 높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해석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p>
<b>매출채권회전율</b>	<p>- 매출채권의 현금화 속도를 측정하는 비율로서 높을수록 매출채권의 현금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출채권회전율의 역수를 취하여 365일을 곱하면 평균회수기간을 계산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이 짧을수록 매출채권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어 판매자금이 매출채권에 오래 묶여 있지 않음을 뜻한다. 그러나 기업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판매전략을 강화하는 경우에도 매출채권회전율이 낮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기업의 목표회수기간이나 판매조건과 비교하여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p>
<b>매입채무회전율</b>	<p>- 매입채무의 지급속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기업의 부채중에서도 특히 매입채무가 원활히 결제되고 있는가의 여부를 나타낸다. 매입채무회전율이 높을수록 결제속도가 빠름을 의미하나 회사의 신용도가 저하되어 신용 매입기간을 짧게 제공받는 경우에도 이 비율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때문에 운전자본의 압박가능성 등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매출채권회전율도 함께 비교/검토하는 것이 요구된다.</p>

▶ 재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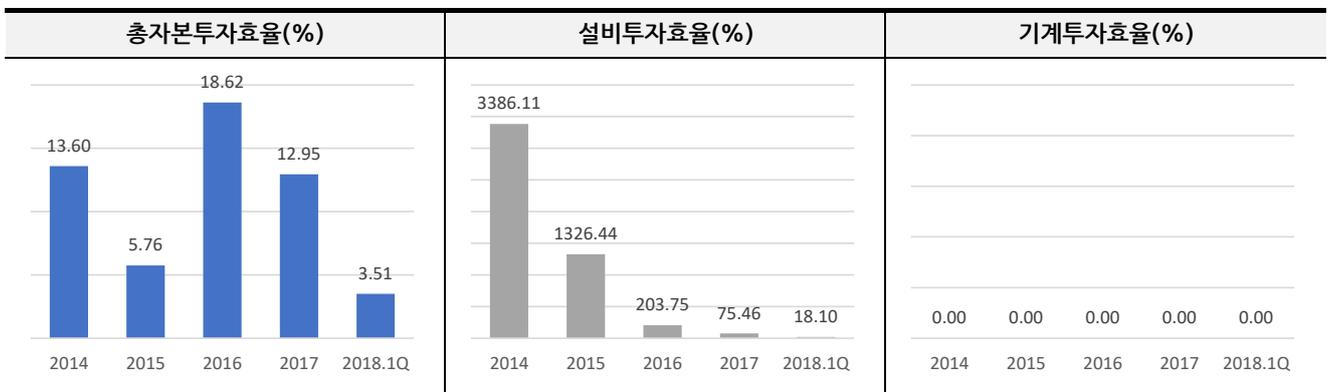
⑥ 생산성 분석

: 기업활동의 성과 및 효율을 측정하고 개별 생산요소의 기여도 및 성과배분의 합리성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지표이다.  
 그러므로 생산성에 관한 지표는 경영합리화의 척도라고 할 수 있으며, 생산성 향상으로 얻은 성과에 대한 분배기준이 된다.  
 아울러 근래에는 기업의 경영성과 평가는 부가가치 생산성 개념으로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1Q	산출공식
총자본투자효율	13.60	5.76	18.62	12.95	3.51	(부가가치 / 총자본(평균)) x 100
설비투자효율	3386.11	1326.44	203.75	75.46	18.10	(부가가치 / (유형자산-건설중인자산)의 평균) x 100
기계투자효율	-	-	-	-	-	(부가가치 / 기계장치(평균)) x 100
노동소득분배율	67.43	119.63	79.04	112.37	185.61	(인건비 / 요소비용부가가치(영업잉여 + 금융비용 + 인건비)) x 100
부가가치	- 부가가치 산출공식: 인건비 + 영업잉여(영업손익+대손상각비-이자비용)+법인세+감가상각비+이자비용 - 인건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의 인건비 항목 x 2로 산정, 이유는 매출원가 포함된 인건비를 반영하기 위함.					

자료: NEW / 세종기업데이터



자료: NEW / 세종기업데이터

생산성 분석 용어 설명

총자본투자효율	- 기업에 투자된 총자본이 1년 동안 어느 정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자본생산성 측정지표로 이 비율이 높으면 총자본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었음을 의미한다.
설비투자효율	- 기업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유형자산(유형자산 - 건설중인자산)이 어느 정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는가를 나타내며, 총자본투자효율의 보조지표로 이용된다. 또한 설비투자효율 x 노동장비율 = 종업원 1인 당 부가가치로 표시되므로 노동생산성의 변동요인 분석에도 이용된다.
기계투자효율	- 설비투자효율의 보조지표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장치가 부가가치의 생산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노동소득분배율	- 기업이 창출한 요소비용 부가가치 중에서 노동력을 제공한 근로자에게 분배된 몫의 비중을 나타낸다.

Compliance Notice

- 저자는 직접 해당 글을 작성하였으며, 저자의 고유한 의견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글은 저자가 습득한 사실에 바탕하여 작성하였으나 제시 또는 인용된 경량수치는 실제의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정확성에 대해서는 보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언급된 회사와 일절의 비즈니스 관계가 없으며, 언급된 주식에 대한 투자행위 및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 귀속됩니다.
- 본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당사의 동의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